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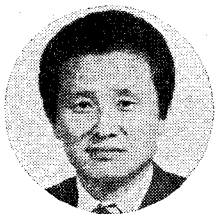
第20回 發明教室 盛了

10月12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본회는 지난 10月 12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20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發明에 關心을 가진 많은 아...○
- ...마추어 發明人들이 參席하여 發明人들의 成功事例를 聽取하고 質疑應答을 통하여...○
- ...아이디어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히고 問題點을 討論하는 자리로서 이번에도 많은 사...○
- ...람들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三和技研 金仁錫 社長과...○
- ...個人發明人 崔佑淳씨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
- ...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不屈의 發明企業人

三和技研 代表 金仁錫 씨



'85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영예의 大統領賞을 受賞한 金仁錫씨 (50·三和技研代表)는 受賞 한달이 지났는데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朱子께서 말씀하신 「不日 新者必日退(하루가 새로워지지 않는 者는 반드시 하루를 퇴보하고 만다)」를 좌우명으로 하루하루를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지요.』

밤낮을 모르고 發明에 몰두하다 15年前 오른

팔까지 크게 다친 金씨는 이 역경속에서도 국내 최초로 「電子式過電流릴레이」를 發明하여 이번 榮光을 차지했다.

金씨가 이 제품을 發明하게 된 동기는 20年前 석탄공사의 실무책임자로 일하면서 절실했던 必要性 때문 이었다.

당시 過電流계전기의 誤動作 때문에 電氣機器가 파손되어 2천여명의 종업원이 4시간이나 作業을 못해 생산량 미달로 남기를 지키지 못해 인건비 손실과 수리비가 엄청난 것을 본 金씨는 이 製品의 發明이 절실함을 느끼고 發明에 몰두했다.

밤과 낮을 모르고 계속된 金씨의 研究는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생산설비의 증설없이 3만t의 月 生産量을 6~9만t으로 늘려 놓았다.

석탄공사를 떠나 아남산업에 재직(1971~1978) 할 당시에는 또 다른 發明品인 수입 대체용 고급육내배선기구를 發明하여 현재 國內 有名企業 體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必要的 것은 研究하고, 그 結果를 만들어 보고, 만든 물건이 생각대로 動作하고 實用性이 있는지 確認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完전한 作品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發明品이지요.』

金씨의 이같은 생각은 81年 오늘의 三和技研을 誕生시켰다.

三和技研을 設立한 金씨는 産業器機의 돌발사고와 고장을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過電流계전기의 開發에 本格的으로 뛰어들었다.

電流와 電壓의 變化를 검출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과정에서 電流式 및 電壓式의 電子 릴레이를 發明한 金씨는 特許登錄까지 마쳤는데 이 發明은 單相모터의 起動이나 瞬間正逆回轉制御에 사용되는등 單相모터 응용기술에 있어 新紀元을 이룩하는 엄청난 結果를 얻게 되었다.

또 이어서 發明된 電子式過電流릴레이의 開發이 成功되어 特許登錄과 동시에 全國 有名 企業 體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金씨가 지금까지 國內에 出願한 工所權件數는 모두 37件, 이중 2件의 特許와 10件의 實用新案이 등록됐다.

20여年만의 結實

個人發明人 崔 佑 淳 씨



崔 佑 淳 氏
信하기에 바쁘다.

나이보다 10年 가까이 늙어보이는 여윈 얼굴

『이 發明을 위해 나의 건강과 6식구의 보급자이린 집까지 날렸지요……』

'85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WIPO事務總長賞을 受賞한 個人發明人 崔佑淳氏(53)는 受賞이후 밀려드는 國內

外的 商談에 밤낮을 이고 回

에는 이 發明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음이 역력했다.

그러나 20여年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그의 發明品도 이제 黎明期를 맞게 되었다.

崔씨가 紙幣計數機 發明을 시작한 것은 지난 78年, 당시 모 會社 經理담당이었던 崔씨는 유능한 모범사원으로 社長의 신임은 바다만큼이나 깊었다.

한마디로 장래를 보장받은 모범사원이었다. 그러나 發明이라는 무서운 熱병은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

『인플레이가 극심한 때인지라 돈의 량은 엄청났지요.』

돈의 량이 많아 은행마감 시간까지 돈의 計數가 불가능하고 計數機를 사용하면 오차가 심하여 正確하고 값싼 計數機 發明을 결심했다는 崔씨에 따르면 당시에도 日製등 외제 計數機가 있기는 했지만 값이 엄청나게 비싸 구입이 어렵고 또 구입한다해도 새돈은 計數가 正確하나 현돈은 오차가 심하여 實用的이지 못했다는것. 또 그나마 「에어식」이어서 현돈의 計數가 가능한 「롤라식」을 發明하는 과정은 100%의 獨創力이 요구되었다는 것.

『한마디로 刻骨의 나날이었지요.』

國內外 관련 서적을 모조리 뒤졌으나 모두가 虛事였고 이 때문에 많은 時間과 研究費가 必要했고 이로 인해 건강과 집까지 날리게 되었다는 崔씨의 말은 한마디로 絶叫였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10年前 책상크기만한 롤러식 計數機 發明에 成功한데 이어 다시 이를 改良하여 3年前 후대가 가능한 計數機를 發明하기에 이르렀다.

『저의 紙幣計數機는 롤러廻轉에 의한 計數作動으로써 各 紙幣間의 一定한 간격을 維持시켜 電子感知表示되며 紙幣間의 接着度와 분리장치의 마찰係數 調定으로 精確히 한장씩 計數되고 규칙적으로 쌓이며 1초당 25枚의 計數가 可能하지요.』

崔씨는 20餘年 고난의 세월이 년말이면 꽃피게 되었다며 오랫동안 환히 웃었다. <W>